

광주시 공공기관장 물갈이 폭 얼마나 될까

24곳 중 기관장 공석 5곳
올 하반기 만료 땐 임기 보장
민선7기 시정철학·방향성 평가

민선 7기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경영 상태, 리더십 등을 고려해 기관장을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놓은 상태여서 기관장 인선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5일, 광주관광컨벤션뷰로의 대표이사 공모가 시작됐으며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도 광주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산하기관은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등 모두 24곳에 달

한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 관광컨벤션뷰로 등 5곳이다. 또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11월), 광주영어방송(9월) 등 2곳이다.

지역에선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사실상 '민선 7기의 물갈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 지난 6월말 대표이사가 사직한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최근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냈다. 응시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법인에서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오는 16일 개별통지하고 2차 면접심사는 22일 예정돼 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누리집에 공고한다.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최근 광주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 시의회가 3명, 자체적으로 2명을 추천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모와 심의를 거쳐 2배수를 광주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과학기술진흥원과 그린카진흥원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시는 "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이후 임기만료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현 기관장의 직무 관련 전문성, 조직을 이끌고 운영하

는 리더십, 민선 7기 시정철학과 방향성 측면을 기본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임기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1명 등 15명이다. 또 최근 회계질서 문란·무리한 인사·공용차량 부당 사용 등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중징계 조치된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의 중도낙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교체되는 기관장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임기 중인 인사에 대한 임기 보장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선 기관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부터 절차에 따라 차례로 인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용역, 공론조사 뒤 추진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립과 관련된 용역을 전면 중단했다. 광주시는 시민권위원회 주도로 진행하게 될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용역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최근 7개 용역사업에 참여한 업체 18곳에 용역 일시중단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2호선 일부 공사 구간과 차량기지 실시설계, 정거장 및 전기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분석과

대책 수립 용역 등이 모두 중단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일 간부회의를 열고 "2호선 용역은 실시설계 단계이므로 중단하든 계속하든 비용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의 용역 중단 요청을 사실상 수용했다.

앞서 광주시의 저심도 지하철 방식의 개발을 반대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신고리원전 5, 6호기에 적용한 시민참여형 속의 조사방식을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여수 해양오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남해화학 매립장 현장점검

여수 해양오염 원인 조사…결과 따라 대책 마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여수 해양 오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활동은 최근 남해화학 폐석고 침출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양오염(백탁현상)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

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 유관 기관과의 합동 현지점검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환경위 오하근 부위원장을 비

롯한 위원들은 이날 이광록 남해화학 대표이사에게 폐석고 침출수 오염 발생에 대한 경위와 매립장 관리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폐석고 매립장 현장점검과 시료채취를 통한 성분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 등 원천적이고 조속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오하근 부위원장은 "오염원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폐석고 적정 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발길 준 '1913 송정역 시장' 불거리 먹거리 늘려주세요

성공한 전통시장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최근들어 급감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으려다 불거리와 먹거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간 시간대 방문객이 불리는 것을 겨냥해 특색있는 '야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1913 송정역 시장'은 지난 2016년 재개장한 이후 2년 가까이 방문객이 급증하다가 최근에는 급감하는 추세다. 그동안 평일 2000여명에 이르렀던 방문객이 지금은 고작 5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또, 주말 6000명 안팎을 기록했던 방문객도 지금은 4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일부에서는 송정역 시장의 경우 야간 매출이 9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인섭 상인회장은 "1913 송정역 시장은 '무늬만 야시장'으로, 저녁 9시 이후면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이 때문에 늦은 시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야시장의 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 이동식 매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현재 68개뿐인 점포를 100여개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광산구는 야시장 점포를 중점 유지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1억원에 그치고 있어 '1913 송정역 시장' 활성화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3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이철우 상임공동위원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등 참석자들과 옛 도청 복원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옛 도청 복원 적극 지원하겠다”

시민단체들 면담…“중앙부처 설득해 조속히 추진”

이용섭 광주시장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3일 시청에서 이철우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과 면담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상임공동위원장 등은 “1년여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을 향해 당시 모습

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며 “민선 7기 임기 내에 5월 문제가 마무리되도록 광주시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복원 실무 관련 광주시 담당자 파견, 건물 내 전시물 철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범시도민대책위 이철우 상임공동위원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미 문재인 대통

령과 정부에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시장으로서 중앙부처를 설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시도 복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이면 5·18이 40주년을 맞는다”며 “내년 39주년 기념식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5·18로, 2020년 40주년을 세계적인 5·18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지난달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오월 어머니들과의 협의에서 인력 보강과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대책위 상황실로부터 복원사업 과정을 직접 보고받고 연구용역을 맡을 기관과 단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전남 신규 공무원 수년째 ‘여초’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규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남성의 수를 앞지른 이른바 '여초' (女超)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6년 연속, 전남도는 4년 연속 남성

성에 비해 여성 신규 공무원이 많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2018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8·9급) 결과, 503명의 최종합격자 가운데 58.1%(292명)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지난 3일 발표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도 여성 비율이 55.6%(637명)를 차지했다. 4년 연속 여성 공무원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의 신규 여성 공무원 비율이 60.2%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직 72.9%, 농업 72.6%, 간호·보건 직로 68.4% 등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답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 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